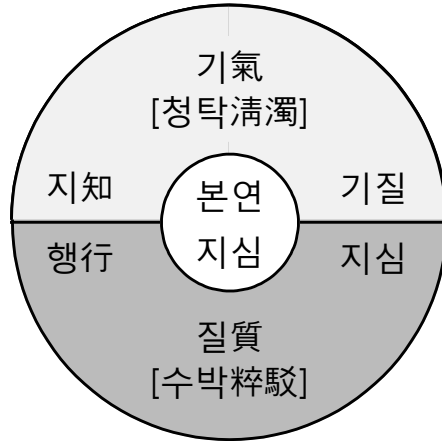


고전콘서트 제6탄

주자朱子の 독서법- 주자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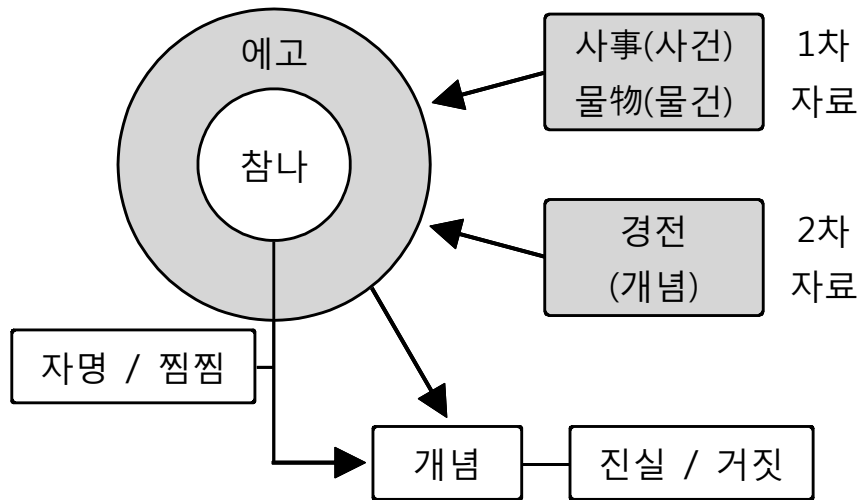
* 『격몽요결擊蒙要訣』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인聖人’이 될 것을 스스로 기약해야 한다. 털끝만큼이라도 자신을 작게 여겨 핑계를 대고 뒤로 빠지려는 생각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일반사람과 성인은 그 ‘본성本性’(인의예지신仁義禮智신의 원상)이 똑같다. 비록 ‘기질氣質’은 맑음(淸)·흐림(濁)·순수함(粹)·잡박함(駁)의 차이가 없지 않으나, 만약 진실로 원리를 알아내고(시비지심의 확충, 반야바라밀), 알아낸 것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면(나머지 양심의 확충, 방편바라밀), 오래 묵은 습관을 버리고(업장의 정화) 그 ‘본성의 원초적 상태’(인의예지신의 원상)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니, 터럭만큼을 보태지 않더라도 이미 ‘온갖 선함’(萬善, 온갖 공덕, 인의예지신)이 그 안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 일반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찌 성인이 되리라 스스로 기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初學 先須立志 必以聖人自期 不可有一毫自小退託之念 蓋衆人與聖人 其本

性則一也 雖氣質不能無清濁粹駁之異 而苟能真知實踐 去其舊染而復其性初 則不增毫末而萬善具足矣 衆人豈可不以聖人自期乎

* 궁리窮理의 요결



* 『근사록近思錄』

진실로 답을 알아냈는지 알아내지 못했는지는 마음상태에서 검증해 보아야 한다. 생각해서 답을 얻었을 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며 흡족하여 여유가 있다면, 이것은 진실로 정답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생각하여 답을 얻긴 얻었으나, 마음이 찻찻하고 답답하면 실제로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추측하였을 뿐이다.

欲知得與不得 於心氣上驗之 思慮有得 中心悅豫 沛然有裕者 實得也 思慮有得 心氣勞耗者 實未得也 強揣度耳

* 『근사록』

대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으니, 마땅히 그 원리를 궁구하여야 한다. '원리의 연구'에는 또한 여러 가지 단서가 있다. ① 혹은 독서하여 의리를 밝히며, ② 혹은 고금의 인물을 논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

며, ③ 혹은 사물(사건·물건)에 대응하여 그 합당한 바에 처한다. 이 모든 것이 ‘원리의 연구’(窮理)이다.

혹자가 묻기를 ‘격물格物’(사물의 본질을 연구함)이란 모든 사물을 연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가지 사물을 연구하여 온갖 원리를 모두 아는 것입니까? 어찌 관통할 수 있겠는가? 만약 한 가지 사물을 연구하여 곧장 모든 원리에 관통하는 것은, 비록 안자라고 하더라도 또한 감히 이와 같이 말하지 않았다. 마땅히 오늘 한 가지 사물을 연구하면 다음날 또한 한 가지 사물을 연구하여, 익힘이 쌓여서 많아진 뒤에야 자유로워지면서 스스로 관통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凡一物上有一理 須是窮致其理 窮理亦多端 或讀書講明義理 或論古今人物別其是非 或應接事物 而處其當 皆窮理也 或問 格物須物物格之 還只格一物而萬理皆知 曰怎得會貫通 若只格一物 便通衆理 雖顏子亦不敢如此道 須是今日格一件 明日又格一件 積習已多 然後脫然 自有貫通處

1. 지금 독서할 때 핵심이 되는 것은, 성인이 사람들에게 공부하도록 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今讀書緊要 是要看聖人教人做工夫處是如何

2. 독서로 ‘성현의 뜻’을 살펴보고, 성현의 뜻으로 인해 ‘자연의 원리’를 살펴본다.

讀書以觀聖賢之意 因聖賢之意 以觀自然之理 (節)

(자연은 말없는 성인이며, 성인은 말하는 자연이다. 자연의 원리 그대로 말하고 살아가며 남을 인도하는 이가 성인이다. 성인의 뜻을 알면 자연의 원리도 알 수 있다.)

3. 성인의 글을 바르게 읽으면, 마치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듯이 그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做好將聖人書讀 見得他意思如當面說話相似 (賀孫)

(독서는 대화이다. 특히나 시공을 초월한 대화이다. 4단을 확충하여 역지사지를 통해 저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때 올바른 독서가 이루어진다. 자신의 선입견과 욕망으로 독서하면 끝내 저자의 뜻을 알아낼 수 없다. 독서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는 남과의 올바른 대화도 하지 못한다. 독서는 4단을 닦는 소중한 도구이다.)

4. 성현의 말씀은 마땅히 늘 눈앞을 지나가게 하고, 입에서 구르게 하고, 마음에서 돌려야 한다.

聖賢之言 須常將來眼頭過 口頭轉 心頭運 (方子)

5. 책을 폈을 때 성현과 견해가 같지 않은 곳이 있다면, 어떻게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開卷便有與聖賢不相似處 豈可不自鞭策 (祖道)

6. 학자는 단지 글을 보는 것만 알고 주위 4방을 알지 못해야 비로소 글의 맛을 느끼게 된다.

學者只知觀書 都不知有四邊 方始有味

7. 글을 볼 때는 마땅히 사나운 장수가 병사를 부림에 진형을 정비하여 격렬하게 싸우듯이 해야 하며, 가혹한 관리가 옥사를 처리함에 죄를 끝까지 추구하여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만 비로소 그 뜻을

얻을 수 있다.

看文字 須是如猛將用兵 直是鏖戰一陣 如酷吏治獄 直是推動到底 決是不恕他 方得 (夔孫)

(독서는 시비지심의 확충을 돕는다. 옳고 그름을 남김없이 추구하라!)

8. 독서하여 ‘의리’를 볼 때는, 마땅히 가슴을 열어서 막힌 것이 없이 명쾌하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효과를 재촉하지 말아야 한다. (결과를 기대하지 마라) 효과를 재촉하자마자 곧장 근심이 생긴다. 기대를 하자마자 곧장 가슴에 덩어리가 뭉쳐서 흩어지지 않는다. 이제 쓸데없는 일들을 내려놓고,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지 않으며, 단지 마음을 집중하여 ‘의리’를 완미하면 마음이 정밀해질 것이다. (과정에 몰입하라) 마음이 정밀해지면 이해가 성숙할 것이다.

讀書看義理 須是胸次放開 磊落明快 恁地去 第一不可先責效 纔責效 便有憂愁底意 只管如此 胸中便結聚一餅子不散 今且放置閑事 不要閑思量 只專心去玩味義理 便會心精 心精 便會熟 (淳)

9. 독서를 할 때 마음을 여유롭게 하면 ‘도리’는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 만약 근심하거나 조급해하면 도리는 끝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讀書 放寬著心 道理自會出來 若憂愁迫切 道理終無緣得出來

(깨어있는 마음에만 진리가 드러난다.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되[거경居易] 글을 음미하며 글에 담긴 도리를 추구하라![궁리窮理] 의심하고자 하여도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도리가 자연히 드러날 것이다. 받아들이 수밖에 없다는 자명한 느낌이 마음에 가득 찰 때 도리가 드러난 것이다.)

10. 글을 볼 때는 ① 조금씩 보면서 숙독하고, (몰입력보다 몰입대상이 작

아야 함) ② 자기주장을 세우려 하지 않고 단지 반복하여 체험하며, (역지사지를 잘 해야 함) ③ 머리를 쳐박고 이해하되 미리 효과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과정에 몰입해야 함) 이 3가지 원칙을 항상 지켜야 한다.

太凡看文字 少看熟讀 一也 不要鑽研立說 但要反覆體驗 二也 埋頭理會 不要求效 三也 三者 學者當守此 (人傑)

11. 독서는 단지 한 권의 책만을 보면서, 날마다 한 단락만 읽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다. 만약 이 책을 보다가 또 저 책을 본다면, 비록 눈가를 지나갔을 뿐 끝내 익숙해지지 않을 것이다.

讀書 只看一箇冊子 每日只讀一段 方始是自家底 若看此又看彼 雖從眼邊過得一遍 終是不熟 (履孫)

12. 요즘 사람들은 독서할 때, 아직 이곳을 다 보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이미 뒷면에 가있다. 이곳을 보자마자 곧장 떠나려고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스스로 밝게 이해할 수 없다. 마땅히 왔다 갔다 배회하고, 잊지 못하여 마치 떠나기 싫은 것 같아야, 비로소 알 수 있을 것이다.

今人讀書 看未到這裏 心已在後面 纔看到這裏 便欲舍去了 如此 只是不求自家曉解 須是徘徊顧戀 如不欲去 方會認得 (至)

13. ‘독서’는 ‘격물’(格物)의 한 가지 일이다. 이제 마땅히 단락을 따라 자세히 완미하여 왔다 갔다 반복해야 한다. 혹은 하루 혹은 이틀 동안 단지 한 단락만 본다면 이 한 단락은 나의 것이 된다. 이 한 단락을 이해했다면 또한 그 다음 단락을 본다. 이와 같이 꼭절마다 붙잡고 늘어져야 한다. 붙잡고 늘어진 뒤에야 모든 도리가 모두 이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讀書是格物一事 今且須逐段子細玩味 反來覆去 或一日 或兩日 只看一段 則

這一段便是我底 腳踏這一段了 又看第二段 如此逐旋捱去 捱得多後 卻見頭
頭道理都到 (大雅)

(한 단락에 담긴 성현의 뜻이 자명하게 이해된 뒤에 다음 단락으로 나아가
면 결국 한 권의 책에 담긴 성현의 뜻을 모두 이해하게 된다.)

14. ‘독서’는 마땅히 마음을 하나로 모아 몰입해야 한다. 이 한 구절을 읽을 때는 먼저 이 한 구절을 이해하고, 이 한 장을 읽을 때는 먼저 이 한 장을 이해해야 한다. 마땅히 이 한 장을 철저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비로소 다른 장을 볼 수 있다. 다른 장·다른 구절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讀書須是專一 讀這一句 且理會這一句 讀這一章 且理會這一章 須是見得此一
章徹了 方可看別章 未要思量別章別句

(모든 일이 다 그렇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하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몰입할 때, 그 일에 관련된 진리도 내 마음에 자명하게 떠오르게 된다. 마음이 깨어나게 되면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잊었던 것이 떠오르며, 안 되던 것이 가능해진다.)

15. 단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기운’을 안정시키고(평심정기平心定氣) 글을 봐야 한다. 또한 마음으로 너무 지나치게 사색해서는 안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소모하게 될 것이다. 선배들이 “독서는 경(敬, 마음챙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 ‘경敬’이란 마음을 정밀하게 하고 하나로 모아서 이 마음이 내달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只是平心定氣在這邊看 亦不可用心思索太過 少間卻損了精神 前輩云 讀書不可不敬 敬便精專 不走了這心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금 이 순간 읽는 그 부분에만 마음을 집중할 수 있다면, 정신이 깨어나게 되어 책의 내용이 일목요연해질 것이며, 정신이 흰

해지고 주위가 흰해 질 것이다. 사물은 모두 내 마음에 떠오른 사물이기에, 마음의 뿌리가 흰히 드러나면 그 대상도 밝게 느껴짐)

16. 알뜰하게 보고 두루 취하는 것은, 익숙하게 읽고 정밀하게 연구한 것만 못하다. (사상누각)

泛觀博取 不若熟讀而精思 (道夫)

17. 한 편의 글을 강론할 때는 마땅히 투철히 이해해야 한다. 한 편의 글과 자신을 묶어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옳을 것이다. 책을 떠나서도 모든 것이 마음속에 있어서 모두 말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좋을 것이다.

講論一篇書 須是理會得透 把這一篇書與自家羈作一片 方是 去了本子 都在心中 皆說得去 方好 (敬仲)

(마음을 챙겨 책을 읽되, 책에 담긴 개념에 대해 “자명하게 맞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면, 결국 내 마음의 원리가 자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책에 담긴 개념으로 내 마음을 자극하여, 참나에 담긴 원리를 자명한 개념에 담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자명하게 실감나게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책을 버리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자명하게 드러난 원리’가 살아서 작동하게 된다. 이것이 불가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을 이루는 방법이다.)

18. 글을 내려놓았을 때, 책의 의미가 마음속에 전혀 남아있지가 않구나.

放下書冊 都無書之意義在胸中 (升卿)

19. 글을 볼 때, 이해가 된 곳을 다시 본다면 더욱 신묘해질 것이다.

看文字 於理會得了處 更能看過 尤妙 (過)

20. 독서는 마음을 챙겨 완미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 ‘의리’가 ‘문자’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讀書著意玩味 方見得義理從文字中迸出 (季札)

21. 글을 읽는 이는 책을 마치려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즉시 마음이 뒷면에 가 있게 되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讀者不可有欲了底心 才有此心 便心只在背後白紙處了 無益 (揚)

(마음이 조금해질 때 곧장 마음을 챙겨 알아차리고 이를 내려놓아야 한다. 조금해진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는 조금하지 않다. 이 알아차리는 자로 존재할 때 우리는 평정심을 되찾게 된다.)

22. 사람이 항상 독서를 한다면 이 마음을 챙겨서 항상 보존되게 할 수 있다. 장횡거는 “글이란 이 마음을 챙기는 수단이다. 잠시라도 책을 내려놓으면, 곧장 덕성이 해이해진다. 어떻게 그만 둘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人常讀書 庶幾可以管攝此心 使之常存 橫渠有言 書所以維持此心 一時放下 則一時德性有懈 其何可廢 (蓋卿)

23. ‘본심本心’(양심)이 매몰된 지가 오래되어 ‘의리義理’(양심에 새겨진 원리, 인의예지신)가 깊이 젖어들지 않는다면, 우선 마땅히 ‘독서’를 하면서 ‘원리’를 연구해야 한다. 이를 항상 끊어지지 않게 하면, ‘물욕의 마음’은 절로 약해질 것이며, ‘본심의 의리’는 절로 편안해지고 견고해질 것이다.

本心陷溺之久 義理浸灌未透 且宜讀書窮理 常不間斷 則物欲之心自不能勝 而本心之義理自安且固矣

(마음을 챙겨 독서하면 ‘거경居敬’이 이루어져 ‘본심’이 밝아지고, 자명한 답들을 찾으며 ‘궁리窮理’를 하면 ‘본심에 새겨진 의리’가 정밀해진다. ‘의리’가 정밀해지면 ‘본심’은 더욱 밝아지게 된다.)

24. 마땅히 ‘마음챙김’(존심存心)과 ‘독서’가 한 가지 일이 되어야, 비로소 그 뜻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須是存心與讀書爲一事 方得 (方子)

25. 독서는 마땅히 ① 마음을 비우고(虛心) ② 자신에게 간절하게(切己) 해야 한다. 마음을 비워야 비로소 성현의 뜻을 알 수 있고, 자신에게 간절하게 해야 성현의 말씀이 헛된 말이 되지 않는다.

讀書須是虛心切己 虛心 方能得聖賢意 切己 則聖賢之言不爲虛說

(선입견을 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며, 자신의 병을 낮게 해주는 비방을 찾는 간절함을 가지고 글을 읽어야, 성현의 뜻이 자명해질 것이다.)

26. 글의 입장에서 글을 보고, 사물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아서, 먼저 자신의 견해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

以書觀書 以物觀物 不可先立己見

27. 독서는 마땅히 자신에게 절실하게 체험되어야 한다. 단지 글로만 보아서 안 된다. 또한 억지로 조장해서도 안 된다.

讀書 須要切己體驗 不可只作文字看 又不可助長 (方)

(자신의 역량이 되는 한에서, 글로 읽은 내용을 실천하여 자신의 병을 낮게 해야 한다. 그런 경험이 쌓일 때 글의 담긴 ‘성현의 뜻’, ‘자연의 원리’는 더욱 자명해진다. ‘체험’과 결합된 ‘개념’은 ‘지혜’를 이루게 된다.)

28. 독서는 바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일을 처리할 때는 ‘옳은 것’(是)이 있고 ‘그릇된 것’(非)이 있으며, ‘이득’(得)이 있고 ‘손실’(失)이 있다. 일을 잘 처리한다는 것은 그 경중을 잘 헤아리는 것에 불과하다. 독서로 그 ‘의리’를 강론하고 연구하여 그 ‘시비’를 판별하는 것은, 일에 임하여 이 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이다.

讀書便是做事 凡做事 有是有非 有得有失 善處事者 不過稱量其輕重耳 讀書而講究其義理 判別其是非 臨事卽此理 (可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이며, 모두에게 손실이 되는 것이 그릇된 것이다. 독서를 하며 이 둘을 엄정히 판별할 수 있다면, 일에 나아가서도 보다 덜 찻찻하고 보다 더 자명한 답안을 선택하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답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다.)

29. 글을 볼 때는 우선 조목을 따라 보아야 한다. 각각 하나의 일이 되니, 서로를 억지로 합하려 해서는 안 된다.

看文字 且逐條看 各是一事 不相牽合

(각각의 조목마다 스스로 자명해야 한다. 자명함이 모이면 더 큰 자명함을 이루게 되나, 각각의 조목이 자명하지 않으면 서로 모여도 찻찻할 뿐이다.)

30. 학자는 종전의 견해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종전의 견해를 버려야만 비로소 새로운 뜻을 볼 수 있다. 예컨대 탁한 물을 퍼낸 뒤에야 맑은 물이 나오는 것과 같다.

學者不可只管守從前所見 須除了 方見新意 如去了濁水 然後清者出焉 (力行)

31. 요즘 사람들은 일찍이 글을 읽은 적이 없으며, 다만 조잡한 글만 읽을

뿐이다. 대저 독서는 먼저 『논어』와 『맹자』를 본 다음에 역사책을 본다면, 예컨대 밝은 거울이 여기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 숨겨질 수 없는 것과 같다. 『논어』·『맹자』·『중용』·『대학』을 철저히 읽지 못했는데 곧바로 역사책을 볼 경우, 가슴 속에는 저울이 하나도 없어서 미혹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今人只爲不曾讀書 祇是讀得粗書 凡讀書 先讀語孟 然後觀史 則如明鑑在此 而妍醜不可逃 若未讀徹語孟中庸大學便去看史 胸中無一箇權衡 多爲所惑 (杞)

32. 역사책을 볼 때는 마땅히 ‘큰 윤리’(大倫理), ‘큰 기회’(大機會), ‘큰 다스림과 어지러움’(大治亂), ‘큰 얻고 잃음’(大得失)을 보아야 한다.

讀史當觀大倫理 大機會 大治亂得失 (節)

(역사를 볼 때는 무엇보다, 4단의 양심을 기준으로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옳음을 드러낼 ‘기회’와 그름을 제거할 ‘기회’를 보아야 하며, 옳음을 드러내고 그름을 제거하여 얻은 ‘다스림’·‘얻음’과 옳음이 제거되고 그름이 드러나서 이루어진 ‘어지러움’·‘잃음’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33. 역사책을 볼 때는 오직 ‘옳은 것’(是)과 ‘옳지 않은 것’(不是)이 있을 뿐이다. 옳은 것을 보면 그 옳지 않은 것을 구하고, 옳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옳은 것을 구해야 한다. 그런 뒤에야 ‘의리’를 볼 수 있다.

凡觀書史 只有箇是與不是 觀其是 求其不是 觀其不是 求其是 然後便見得義理 (壽昌)

(양심의 지지를 받아 자명한 것이 ‘옳은 것’ 즉 ‘선’이며, 양심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찌뚱한 것이 ‘그릇된 것’ 즉 ‘악’이다. 자명함은 양심이 선에 ‘축복’이 내린 것이며, 찌뚱함은 양심이 악에 ‘재앙’이 내린 것이다.)